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733 호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5월말까지 빛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당정, 신용사면 시행키로…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 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 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

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 송진영 기자

다저스 vs 샌디에이고 MLB 서울시리즈 오후 7시 시작



3시 5분에 서울시리즈를 케이블 채널 ESPN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미국 전역으로 중계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전인 이 경기는 '7억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와 3억2천 500만달러로 역대 MLB 투수 최고액 신기록을 쓴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다저스 데뷔전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팀에 연착륙하면 6월에 이름을 미국 전체 지역에 알릴 기회를 잡는다.

ESPN과 미국 전국 중계를 맡는 폭스 방송은 6월 21일 샌프란시스코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벌이는 경기를 생중계한다. 이 경기는 MLB 사무국이 미국 야구 역사의 한축을 담당한 흑인 리그(나그로리그)에 현정하는 게임으로, 1910년 건립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야구장인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릭우드 필드에서 열린다.

흑인리그 경기장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첫 MLB 경기에 한국에서 온 이정후도 발자취를 남긴다.

/ 최준용 기자

중기부, 생애 첫 창업 청년창업자에 사업화 자금·교육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는 기술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78명 정도다.

중기부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평균 4천6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 기초교육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또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



창업지원시설 방문한 오영주 장관

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28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평균 4천800만원, 최대 7천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 조현주 기자

'댓글공작' MB정부 경찰 고위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시받고 100명 규모 댓글전담팀 구성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댓글 여론 공작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 전 정보심의관과 김모 전 대변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해 하급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작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백형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野탈당 3인방, 내일 창당계획 발표…“총선 3파전 구도가 중요”

조응천 “기호 3번 가능한 7석 이상 목표…기호 3번으로 모이는 건 합당이 전제”



한명 빠진 원칙과 상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주류 의원 3인방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12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이들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각각 주도하는 신당과 확고한 연대를 통해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연대의 형태가 합당이 될지, 선거연대가 될지는 아직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빅텐트 구축을 통해 '제3 정치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정도에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신

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이들은 창당 후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등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제3 정치세력’으로 입지를 굳히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무게를 뒀다.

조 의원은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개인과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교감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

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제정당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돌연 ‘당 잔류’를 선택한 데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같이 가자고 마지막까지 호소했다”면서 “탈당이 옳고 당에 남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남는 것도 또 하나의 정의이고 선(善)”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조 의원은 “윤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그쪽 그룹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속했던 이들은 전날 탈당과 함께 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민주 의원 129명, 이낙연 탈당 만류 “분열은尹정권 도와줄뿐”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이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계획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성명은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 대표는 지금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라고 반박했다.

강득구·김민정·강준현·신정훈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로 발표한 성명은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 고 말했다.

성명은 또 이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지낸 것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역하길 바란다. 정권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 권도훈 기자

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 현역의원 이철규·이종성·장동혁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종결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

다.
현역 의원 중에는 천운(천운석열) 학 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 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박소희 기자

천하람, 불출마 與김웅·野오영환에 “개혁신당서 출마” 제안

여야 개혁성향 수도권 초선 의원에 개혁신당 합류 공개 탄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진하는 개혁신당(기칭)은 11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의 수도권 개혁 성향 의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영환 의원과 김웅 의원께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초선·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의원도 지난 8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발언하는 천하람

천 위원장은 “나가야 할 사람들은 안 나가고 (여야 각 당) 내부에서 소신 있는 행보를 했던 팬찮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양당에서 ‘바꿀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신당에 와서 출마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당에 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출마 명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득권이 없고, 특히 지역구에 출마하면 다 어렵다. 그것이 변화와 도전을 원했던 오 의원과 김 의원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선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최재운 기자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략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 지원
M&A 생태계 조성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2023.08.29. ~ 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통망 확장 차별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규제작비(예: 02-739-7990 e-mail : bl@ibk.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표 흥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 공

개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당직, 금융거래 내용 등 공개를 요구하면서 “변명문 내에 일부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테러를 한다면 이번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표 흥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 원점에서

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당직, 금융거래 내용 등 공개를 요구하면서 “변명문 내에 일부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테러를 한다면 이번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 신용철 기자

노소영 '현금 2조원' 요구…최태원, 김앤장 선임해 대응

양측, 서로 “재판부 쇼핑” 주장하며 법정 밖 공방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훈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을 두고 서로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노소영 관장, 이훈 소송 항소심 출석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 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

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 억원에서 1조100여억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

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노 관장 측은 이러한 선임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는 ‘재판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돌연 기일을 연기하고 일정을 주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름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 근

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들은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송원기 기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는 서울 한 공공산후조리원

‘육아휴직 쓰면 팀장 보직 제한’ 행안부 “법 위반 여부 파악”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 정경호기자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이재우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을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아주 없앰)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에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모두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 서종의 기자

‘신림동 흥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흥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

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



이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

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범행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고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 차현우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고용노동부

“기후대응 외치는 바이든, 트럼프 때보다 석유 더 퍼올려”

환경론자 “지지층 배신…추가시추 중단·수출금지 복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는 석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환경론자 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최고 1천320만 배럴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9년 11월 기록된 1천320만 배럴보다도 많은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0년 2월 “국유지에서 더 이상 석유 시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토지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석유 생산을 위한 토지 임대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에서의 석유 시추 허가 건수는 2021년 9천173건에서 2022년 6천732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월 회계연도 기준 2023년에 다시 7천247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뉴스위크는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해 화석연료 증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론자들은 이런 추세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석유 생산 억제를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질 스타인은 “바이든이 보내는 메시지는 기후위기가 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당선을 도운 유권자들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CBD)의 진 수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강력한 기후 수사를 앞세웠으나 실

제 화석연료 관련 기록은 정부의 청정에너지 기록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유지의 새로운 시추 허가를 중단하고, 1975년 도입됐다 2015년 폐지된 석유 수출 금지령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석유 생산 제한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소비자 물가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베리 라베 미시간대학교 공공정책 및 환경학 교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대부분은 사유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이 그의 재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론자들은 정책 ‘역주행’이 기후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와 젊은 층의 이탈을 초래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현재의 정책이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주류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 이진성 기자

지원 급한 젤렌스키,

이번엔 발트 3국행 “지지에 감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트 3국 순방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했으며 에스토니아 탈린과 라트비아 리가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통합, 전자전 및 무인기(드론) 관련 협력, 유럽의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 조정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



나이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이자 원칙이 있는 동맹”이라며 “무엇보다도 2014년 이후, 그리고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타협 없는지를 보여준 감사표”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을 끝내자마자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과 정상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이튿날에는 예고 없이 독일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 강호성 기자

엡스타인 문건 공개완료…“1만5천 달러에 앤드루 왕자와 성관계”

피해자 2016년 증언 진술 등 포함…AP “새로운 추가정보는 거의 없어”



美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에프스타인(왼쪽)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관련한 법원 문건들에 대한 공개 절차가 9일(현지시간) 완료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날까지 공개된 문건은 에프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가 2015년 에프스타인의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증언록과 녹취록 등 수천여 페이지의 서류들이다.

소송이 2017년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 되고 이와 관련한 법원 문건들은 수년에 걸쳐 공개됐지만, 법원이 지난 달 문서의 봉인

된 부분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명령한 뒤 지난 주부터 차례로 추가 공개됐다. 의명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되살린 이들 문건에는 영국 앤드루 왕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영미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인사들이 거명돼 있다.

이날 공개된 마지막 문건에는 주프레가 17세 때부터 에프스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앤드루 왕자를 포함한 남성들과 성적 접촉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2016년 증언록이 포함됐다.

주프레는 당시 진술에서 앤드루 왕자와의 성관계 대가로 에프스타인에게서 1만5천 달러(약 1천981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프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에프스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 소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프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취지 혐의로 체포돼 2019년 뉴욕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행을 도운 맥스웰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노승만 기자

차이메리카 끝났다…이제 미국 최대수입국은 중국 아님 멕시코

미국의 연간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 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미중 통상갈등이 양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액은 멕시코가 398억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4억9천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멕시코는 전월인 10월에도 429억2천400만 달러로 415억7천1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상품 수입국이 된 바 있다. 11월 이전 1년간 상품 수입액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멕시코가 4천389억8천600만 달러로 1위였고, 중국은 3천931억3천700만 달러로 2위였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이 없는 한 12월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로도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몸인 ‘차이메리카’로 불릴 정도로 밀접한 교역을 이어왔다.

미국은 최근 십수년 동안 중국을 최대 수입국으로 삼아 저가 상품을 사들여 물가를 관리했고 중국은 달러화를 쓸어갔다.

중국은 2018년 3월 이전 1년까지도 미국 상품 수입액의 21.8%를 차지하는 파트너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2016년 집권한 뒤 급격한 변화가 뒤따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선언하며 중국에 광범위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출범했으나 고율관세를 대부분 존치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갔다.

/ 신재일 기자



토니 에스탕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 안보 우려에도 “센강서 개막식”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198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식을 예정대로 센강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토니 에스탕게 조직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개막식 예술 감독과 함께 센강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체육관 등 다른 장소에서 개막식을 개최할 ‘플랜B’는 없다는 말이냐”고 묻자 “없다”며 “개막식은 센강에서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에스탕게 조직위원장은 아울러 “보아야 올림픽 성공의 열쇠라는 데는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내려진 모든 결정은 보안 문제를 다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 밖에서 열린다. 각국 선수단을 태운 160여척의

배가 센 강 동쪽인 오스테를리츠 다리 밑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6km를 수상 이동, 에펠탑 건너편인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하는 시나리오다. 시민들은 센강변에서 이를 관람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내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개막식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런 걱정은 더 커졌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프랑스 5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없는 한 개막식은 센강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개막식 직전 과거 2015년 11월과 같이 연쇄 테러가 발생한다면 센 강변에서 개막식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플랜B, 플랜C 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민영선 기자

NH농협생명

SINCE 1965
NH농협생명

58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밟혀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100년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NH농협생명 내맘같이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T가 함께 응원합니다.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상품문의
1588-0114

KT 하이오더

- 테이블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 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A hand is shown interacting with a tablet screen displaying the KT HyoDde service interface, which shows various food items and their prices. A large pizza is visible in the foreground on the table.

삼성 일가 세 모녀, 계열사 지분 2조8천억원 블록딜 매각 추진

상속세 납부용…삼성전자 지분 약 2조2천억원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작년 10월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다.

10일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천900억원어치(2천982만9천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다.

매각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 이부진 사장 0.04%, 이서현 이사장 0.14%다.

주당 매각가는 이날 종가인 7만3천600원에서 1.2~2.0% 할인된 수준이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 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에 나선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은 총 2조8천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블록딜 거래는 오는 11일 개장 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송진영 기자

편의점업계, 아시안컵 마케팅 경쟁 돌입…‘치맥’ 할인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1월 12일)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편의점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우리 대표팀이 바레인을 상대로 예선 첫 경기를 하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류, 안주류, 스낵 등을 중심으로 40여종의 상품을 할인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때마다 잘 팔리는 맥주는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기네스, 스텔라, 호가든 등 7종을 특가에 판매한다. 경기 당일 고객 수요가 높은 즉석조리 치킨 상품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자이언트 순살치킨, 후라이드 치킨 박스 등을 1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한국 대표팀의 예선 경기가 치러지는 15일과 20일, 25일 별도 시간제한 없이 후라이드 한 마리를 30%

할인해준다.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스텔라아르투아, 하이네켄, 아사히 등 인기 수입 맥주 번들 상품(4~6입)을 25% 이상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탑스제로, 얼티브프로 등의 음료 제품은 '1+1'으로 선보이고 허쉬바, 하와이안마카다미초코바는 '2+1' 혜택을 준다. 대용량 구구크러스터(660mL)는 20% 할인한다.

GS25는 아예 ‘치맥’ 결합 상품을 준비했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배달 또는 픽업 주문 시 쏜살 치킨과 맥주 4캔을 1만원대 행사가에 판매한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는 전날 또는 경기 당일에는 맥주와 냉장·냉동 간편식, 안주류 등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GS페이로 5천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유럽 축구 직관 여행 5박 7일권과 축구 유니폼, 공인구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 서동혁 기자

요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 평균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심의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폐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사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꽈도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 (화)



시무식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한다

방통위, 예산 5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사의 예산을 4억9천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정보가 급증하면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심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천551건에서 300% 증가했고, 삭제와 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

요되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꽈도진 기자

석유공사, 인니 국영 석유회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인니 유전·가스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장소’ 물색…사업성 검토

한국석유공사는 10일 서울 종구 롯데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유전·가스전의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CCUS)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협약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있는 복수의 유전과 가스전을 대상으로 CCS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생산이 종료된 인도네시아의 유전과 가스전을 CO₂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현재 국내에서 국책과제인 통해 가스전 CCS 실증사업과 이번 인도네시아 CCS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실증자료 공유 등 시너지가 발생하고, 향후 CCS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석유공사, 인니 국영 석유회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위한 공동조사협약식

아울러 장기적으로 석유공사와 국내 탄소 다배출 기업이 참여하는 한·인도네시아 탄소저감사업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페르타미나와 CCS 공동 연구 및 석유개발·저장소 사업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까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JSA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CCS 실증 경험을 쌓아 아시아 전략 지역에서 CCS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 오문섭 기자

고등어·오징어·참조기 등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신용준 기자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18개 마트(1천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산 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MLB 부사장 만난 오세훈…‘서울시리즈’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

서울서 지속적인 경기 제안…돔구장 건립 자문체계 구축·교류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프로야구(MLB) 부사장을 만나 서울에서의 MLB 정규시즌 경기 개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MLB 측에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정규시즌 경기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잠실 돔구장 건립을 위한 자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다.

오 시장은 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칠리 힐 국제사업총괄 부사장을 만나 시와 MLB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열리는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계기로 성사됐다.

2022년부터 시작한 MLB 월드 투어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MLB가 세계 각지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는 행사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MLB의 정규시즌 개막전으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 경기선은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과 고우석 등 MLB에서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출신의 메이저리거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리 힐 MLB 부사장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또 다저스엔 MLB 역사상 최고액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계약한 슈퍼스타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 샌디에이고 엔 라브리우 등 일본의 거물급 선수들도 포진해 한일 야구팬의 염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서울에서 열리는 MLB 개막 시리즈를 ‘여행을 가서라도 봐야 할 새해 스포츠 이벤트’로 꼽은 바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대 도시 서울에는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며 서울의 도시 매력과 관광 역량에도 주목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시가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척돔 경기장 시설 관리 및 정비,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MLB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뤄졌다. 시는 국내외 야구팬이 한국에서 열리는 MLB 경기를 즐겁고 안전하게 관람하고, MLB 선수들도 최고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고척돔 경기장의 투광등과 인조 잔디 교체, 그라운드 정비 사업, 관람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미국, 캐나다에 있는 돔에 비하면 한국의 고적돔은 작지만, 아마도

경기를 보러오는 관객의 열기나 참여도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서울 시리즈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매년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면 한국의 많은 분이 야구를 사랑하게 되고 MLB도 세를 확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서울 시리즈가) 잘 진행돼서 정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잠실 돔구장 건립 계획과 관련 세계 최고의 야구 산업 노하우를 보유한 MLB와의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야구 세계화를 위한 야구 문화 교류와 유소년 선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협력해 양 기관 모두에 원-원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미 출장으로 캐나다를 찾은 오 시장은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힐 부사장은 “이번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최가 MLB와 서울시 간의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 이영준 기자



시청역과 전장연

‘지하철 시위’ 전장연 과태료 6개월째

미집행…“재판 지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2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6개월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10여 명은 지난해 3월 21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십 장 붙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남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6일

두 사람에게 과태료 300만원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박 대표 등은 불복해 약 2개월 후인 6월 23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비송사건재판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재판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과태료 재판의 경우 개최 기한이 규정돼 있는 않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반년 넘게 재판이 헛바퀴를 도는 상태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제재 권한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최근 재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 노건우 기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강릉서 선수촌 식단 시식회 개최

80여개국·2천900여명 이용…100가지 메뉴로 세계 청소년 입맛 맴료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단 사전 시식 행사

관과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 개최지 시장·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제공할 음식들을 시식하고 메뉴 구성과 식당 배치, 선수단 영양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최종 점검을 벌였다.

이날 조직위는 대회 기간 선수단 2천9백여명에게 제공할 5일 주기 메뉴 중 첫째 날 중심 메뉴 100여 가지를 선보였다.

장미란 2차관은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즐거울 수 있도록 고른 영양이 담긴 우리나라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우리 간식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80여 개국에서 참석하는 청

예공할 메뉴 시식회를 열었다.

선수촌 운영을 사흘 앞두고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

소년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서양식, 한식, 할랄식, 비건식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 강릉과 정선 선수촌 두 곳에서 선수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 신지호 기자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자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합니다.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제주 공무원노조 “김희현 부지사, 예산 정국 부적절 행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내 “도의회와 예산 협의에 나서고 가교 구실을 해야 할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예산안 심의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고 부적절한 행보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위직 공직자의 사생활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데 이어 온 공직자가 도의회 예산심의 통과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기울여야 할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25일 주말 개인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를 뒤인 지난해 11월 27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세계

속에 비친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공휴일인 토요일이나 출장 중이라도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다”며 “회기 직전에 개인 용무를 본 게 문제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지사는 또 “도의회 의장과 예결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피치 못할 국외 일정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했다”며 “저와 직접 협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국장을 통해 처리하도록 모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곡된 사실과 사생활 보도로 인해서 나름대로 걸어온 길을 부정당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취임 이후 첫 정무부지사로 2022년 8월 임명했다. / 김유정 기자

KB금융그룹

GANGWON
202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홍준표 “달빛철도법 통과 안되면 다음 국회서 다시 발의”

대구미술관장 ‘친구’ 논란에 “결격사유 유무가 문제, 쓸만하면 발탁 가능”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회 상임위 통과 뒤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종선 이후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 대표가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윤 원내대표와 별도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고 “(특별법 통과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했다.

그는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29년 정치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도



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했다.

홍 시장은 윤 원내대표가 자신의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라는 점도 상기시키고 “자신이 발의하고 자기가 저지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이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무생점 법안인데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인 노중기 대구미술관장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친구라고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내 친구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발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정부 인사 때 자기와 인연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 등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커피 만드는 장학생들

산천어축제장에 펴진 평화의 커피 향

에티오피아 홍보관 눈길

2024 화천산천어축제장에 평화를 기원하는 에티오피아 커피 향이 은은하게 펴지고 있다.

화천군은 축제장에 에티오피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전통의상을 입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현지에서 공수한 최상급 원두로 전통 방식에 가깝게 추출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 청년은 군의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수혜 학생들이다.

이들이 만든 커피는 ‘피스’(Peace) 커피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1잔에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수익은 전액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에 쓰인다.

홍보관에서는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을 비롯해 지역 군부대, 개인과 단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참전용사 후손들이 꿈을 이루고 조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도영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국내 유일

인공지능(AI) 실증 도시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인공지능(AI) 특화 데이터센터 등 기반 시설과 도시 규모의 실증 환경을 조성해 인공지능 실증 도시라는 대한민국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새해 첫 정책 현장 소통 행사인 ‘정책소통’ 방문지로 광주 북구 첨단3지구 내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찾아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시설과 올해 준공 예정인 실증·창업 공사 현장을 살폈다.

업동

이날 정책소통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1 단계 조성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 2단계 실증도 시 구현 방안 등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엔에이치엔(NHN)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과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 김정수 엔에이치엔(NHN) 상무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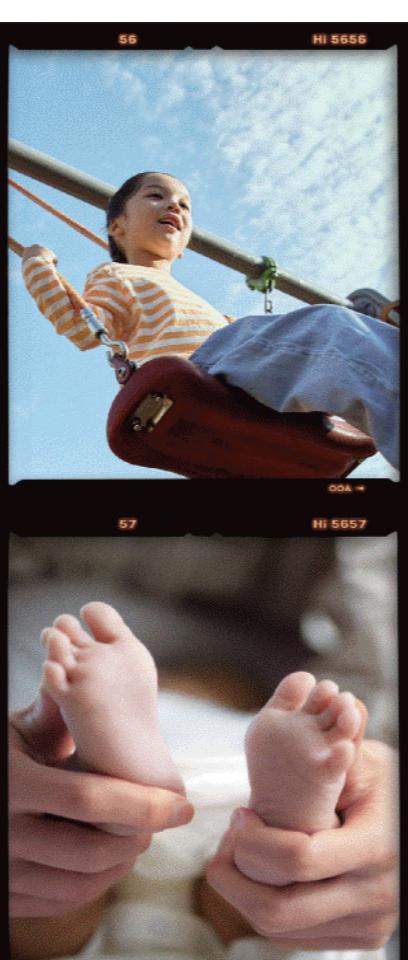
참석자들은 전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를 주목하고 협업을 원하는 만큼 센터를 활용한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센터는 연산 능력 20페타플롭스(PF·1 초당 1천조 번 연산 처리)의 고성능 컴퓨팅(HPC)과 68.5페타플롭스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훈용 방식으로 구축됐으며 총 88.5페타플롭스 연산 자원과 107페타바이트(PB) 저장공간을 갖추고 있다.

/ 남희철 기자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고도제한 63cm 어겨 입주 못하는 아파트…김포시, 시공사 고발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당초 3세대



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족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건설사는 고도 제한 규정에 맞도록 향후 2개월 동안 내부 엘리베이터 등의 보완 시공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 권도현 기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 고향 고창군에 건립



고창군에 설치된 전봉준 장군 동상 ‘의(義)의 깃발 아래’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그의 고향인 전북 고창군에 세워졌다.

고창군은 군청 회전교차로 옆 소공원

에서 전봉준 장군의 동상 ‘의(義)의 깃발 아래’ 제막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은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고부 봉기에 실패한 농민군이 ‘무장봉기’

를 일으켜 전국적인 항쟁으로 내닫는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에도 장군 관련 시설물이 없었다.

이에 군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등과 함께 국민 성금 2억6천여만원과 군비 등 6억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조형물은 국경오·강관육 구상조각가의 작품으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 농민군 등 12인의 군상으로 이뤄졌다.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이 무장 포고문을 읽고 나서 의연한 자세로 앞을 향해 봉을 내딛는 순간을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그 옆에는 보국안민(나라를 돋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폭포구민(폭압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자) 등 주체 의식이 새겨진 깃발 아래 선 농민군의 의연한 자세를 담았다.

/ 양승민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 롭게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일산 오픈”

신한 연금라운지가 열린다 인생 2막이 더 즐거워진다

은퇴 자산뿐 아니라
건강한 은퇴 라이프까지
신한은행 **연금라운지**의
고객 맞춤형 1:1 연금 솔루션으로
걱정 없는 인생 2막을 즐기세요

[신한 연금라운지]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신한 연금라운지 일산

- ▶ 통합 연금 컨설팅: 연금통합관리 및 은퇴자산 설계
- ▶ 현금흐름 진단: 매월 입·출금 분석을 통한 은퇴 후 소득·지출 진단
- ▶ 전문가 상담: 세무, 부동산 등 전문가 연계 상담
- ▶ 평생소득 아카데미: 은퇴 전·후 필수 금융상식 및 주택연금 심화상담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3층 02-6224-5499

주연역 5번출구 신한은행 4층 031-812-3655

신한SOL 연금라운지 * 모바일 플랫폼

- ▶ 신한은행 연금 자산 통합 관리 및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 ▶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 연금고객님 전용 상품 / 서비스 안내
- ▶ 간편한 세금 조회 서비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신한 SOL 뱅크

* 위 이미지는 일러스트로 표현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자진심사필 제 2023-15835-1(2023.12.15~2024.12.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둘째 날 신한은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기 혼선' 일단락…올해 1학기 성적부터

교육부 '2023년 2학기 성적 반영' 입장 철회…“현장 피해 최소화”

교육부가 학교 체육 현장 피해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마음을 좋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해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국내 대회 참가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24일이다.

본래 교육부는 지난달 1일에는 2023년 2학기 성적부터 따져 다음 학기인 2024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출전 제한 조치를 담은 것이니 ‘성적 반영’이 아닌 ‘대회 참가 제한’을 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시행규칙 문구상 다르게 법령을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이런 지침이 공개되자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까지 시행일 외 구체적 정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2024년 1학기부터 대회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올해 1학기 성적으로 2학기 출전 여부를 짚는 쪽으로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에 올해 1학기 성적부터 반영된다고 안내받는 등 당국 사이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첫 입장이 기말고사 시기에 나온 탓에 교육청 등 당국 안내를 믿고 운동에 매진하던 일부 학생이 낭패를 보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면 성적 미달 시 만회할 방법이 없는 중학교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고등학생은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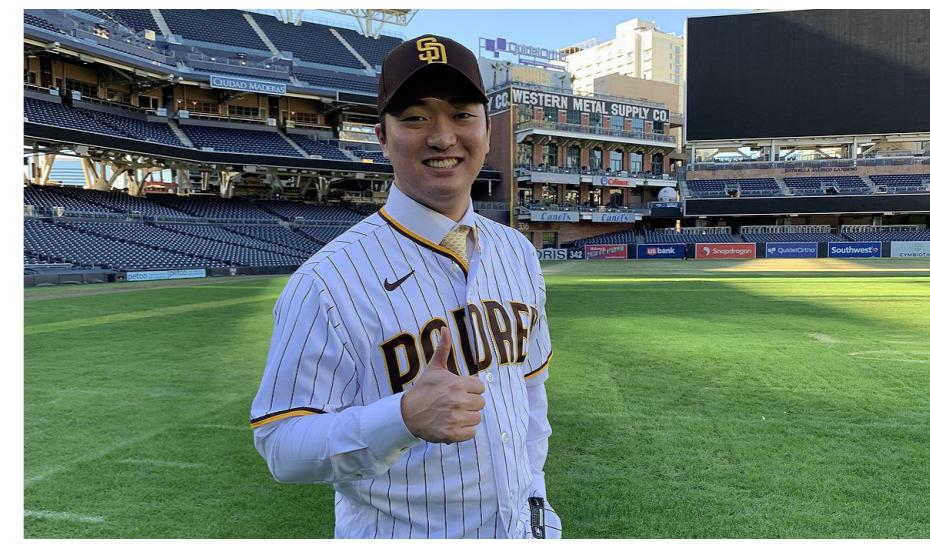
특히 올해 상반기 대회가 교교 진학에 중요한 현재 중 2선수 가운데 실질적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말 대회 출전 제한 조치는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하는 등 체육계 반발도 있었다.

각종 민원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확인한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시행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봤고, 결국 학생 선수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성적 반영 시기를 지난해 2학기로 해야 한다는 쪽과 올해 1학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대 50이었다”며 “내부 검토 끝에 교육 수요자에 유리한 쪽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준용 기자



펫코파크에서 포즈 취하는 고우석

침통한 배구계, 세상 떠난 최홍석 추모…OK는 근조 리본

신영석 우리카드 감독 “심성 착한 선수였다” 애도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OK금융그룹 송희재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 우리카드, 한국전력 구단은 전 소속 선수 최홍석의 사망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세 구단은 1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

고 밝혔다. 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과 선수들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전에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왔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경기에 앞서 “심성이 착한 선수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1988년생 최홍석은 2011~2012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드림시스(현 우리카드)에 입단해 2018년 한국전력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세 시즌 간 OK금융그룹에 서 뛰었다.

데뷔 3경기 만에 트리플 크라운(서브·블로킹·백어택 각 3개 이상)을 달성한 최홍석은 그해 신인왕을 차지했다.

2009~2012년, 2015~2017년에는 태극 마크를 달고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리그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뽐냈다.

2021~2022시즌 후 현역에서 은퇴한 최홍석은 지난해 SBS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다가 9일 세상을 떠났다.

/ 이영민 기자

K리그1 대전, 김포서 뛴 공격수 송창석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김포 FC에서 활약한 공격수 송창석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창석으로서는 1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다.

2022시즌을 앞두고 대전에 입단해 프로에 입성한 송창석은 정규리그 6경기에 출전, 1골을 기록하며 데뷔 시즌을 보냈다. 2023시즌 K리그2 김포로 이적한 송창석은 12경기에 출전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 친정팀으로 돌아왔다고 대전은 밝혔다. 송창석은 “프로 생활을 시작한 대전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팬들의 열정, 관심이 크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영준 기자

샌디에이고 고우석, 새 등번호 21번 선택

19번은 구단 영구결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고우석(25)이 새 등번호를 달고 뛴다.

샌디에이고 구단이 10일(한국시간) 공개한 2024시즌 40인 명단 등번호를 보면, 고우석은 ‘21번’을 배정받았다.

고우석은 KBO리그 LG 트윈스 소속 시절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었다.

배번 19번에 관한 애정은 커다. 그는 대표팀에서도 늘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지난해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19번을 달고 출전했다.

당시 고우석은 한국대표팀에 합류한 메이저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배번이 겹쳤지만, 에드

먼의 양보로 19번을 달기도 했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에서 등번호 19번을 포기한 이유가 있다. 이 번호가 구단 영구결번이라서다.

19번은 샌디에이고의 전설적인 선수 토니 그루이 사용하던 번호다.

샌디에이고 주립대를 졸업한 그루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샌디에이고 한 팀에서만 뛰었고, 통산 20시즌 동안 2천 440경기 타율 0.338, 135홈런, 1천138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그는 총 8차례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올랐고, 15차례 올스타에 뽑혔다.

그루은 은퇴 후 샌디에이고 주립대 감독으로 활동하다 2014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 박정우 기자

프로농구 올스타, 팬 120명과 ‘커피 한 잔, 추억 한 스푼’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나서는 ‘별들’이 카페에서 팬들과 만나 추억을 쌓는다.

KBL은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하루 앞둔 13일 사전행사 ‘크 블랜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14일 경기도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다.

올스타전 전날 열리는 사전행사 크블랜드는 올스타전 출전 선수 2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카페로 초대된 팬 120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게임, 토크쇼, 포토 타임 등을 통해 추억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올스타전 당일에도 각종 이벤트 부스와 콘테스트, 축하공연 등 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행사들이 마련됐다.

경기장 바깥에 다양한 편스가 설치되고 올스타 선수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즈 부스와 올스타 포토존이 팬을 맞이한다. 또 본 경기 시작 전에는 3점슛 및 덩크 콘테스트 예선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올스타 선수가 입장할 때는 3D 매핑 영상과 디제잉이 화려한 멘트를 더하고, 각 선수는 팬이 추천한 퍼포먼스를 직접 선보인다.

1쿼터 타임아웃 때는 3점슛 콘테스트 결승을, 하프타임에는 덩크 콘테스트 결승과 가수 권은비의 축하공연이 예정됐다.

/ 신경진 기자

또 하나의 백화점, 현대백화점 APP

현대백화점의 모든 경험을 한 손에!

백화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앱 하나에 담았습니다.

웨이팅

팝업스토어
대기 시간을 아껴줌

예약하기

인기 레스토랑을
원하는 시간에 예약

모바일 간편 결제

할인과 결제를
동시에

혜택과 정보

나의 쇼핑
패턴에 맞춤

새로워진 현대백화점 APP
지금 만나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L&G | 현대리빙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백화점케어 | 현대아린아체미술관

한국영화로 돌아온 윤여정 “감독과 쌓은 전우애로 출연”

김덕민 감독 ‘도그데이즈’에서 까칠한 건축가 역

“김덕민 감독이 대단한 연량이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하.”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2021),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2022) 등 글로벌 콘텐츠에서 활약한 배우 윤여정이 오랜만에 한국 영화로 관객을 찾는다.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김덕민 감독의 ‘도그데이즈’를 통해서다.

윤여정은 10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김 감독이 조감독이던 시절에 만났는데 둘 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 전우애를 다졌다”며 “나중에 (감독으로) 데뷔할 때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했었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이 영화는 개를 매개로 만나게 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 장르로, 윤여정은 반려견 안다와 단둘이 사는 까칠한 성격의 유명 건축가 민서 역을 맡았다. 김 감독은 “(윤여정) 선생님이 꼭 해주



배우 윤여정이 10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제작 과정에) 탄력을 받았다”며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를 모르면 간첩’(2004)의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첫발을 디딘 그는 이후 ‘인천상륙작전’(2016), ‘그것만이 내 세상’(2018), ‘영웅’(2022) 등에서 조연출을

맡다가 20년 만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됐다.

이 작품에는 윤여정 외에도 유해진, 김서형, 김윤진, 정성화, 다니엘 헤니, 이현우, 탕준상 등 다양한 배우가 출연했다.

‘도그데이즈’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출연진은 바로 개들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촬영 현장에서 어려움도 따랐다.

김 감독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 친구들이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윤여정은 “개들이 다들 연기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호흡한 완다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고 했다.

유해진은 자신의 파트너인 치와와를 두고 “말을 엄청 안 들어서 제가 개를 연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설 연휴 이틀 전 개봉하는 ‘도그데이즈’는 조진웅·김희애 주연의 스릴러 ‘데드맨’, 배수빈 감독의 액션 영화 ‘아가일’ 등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유해진은 “한국 영화에 모처럼 흥풍이 부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도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관객들에게 당부했다.

/ 이채원 기자



정동원 ‘부캐’ JD1, 아이돌로 데뷔…첫 싱글 발매

가수 정동원이 JD1라는 이름을 달고 신인 아이돌로 데뷔한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JD1이 오는 11일 첫 싱글 ‘후 웬 아이’(who Am I)를 발매한다”라고 밝혔다.

JD1은 ‘AI(인공지능) 신인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정동원의 ‘부캐’(서브 캐릭터)로, 정동원이 트로트를 넘어 다양

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냈다.

신곡 발매에 앞서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서 JD1은 다채로운 색감을 배경으로 아이돌 비주얼을 뽐낸다.

소속사는 “JD1은 K팝 시장 도전을 목표로 기획된 아이돌”이라며 “정동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안정수 기자

이성경, 단국대병원에 1억원 기부

“의료계 발전에 도움 되길”



배우 이성경이 작년 말 단국대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

1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기부금은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의료 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성경은 “의학 드라마 출연을 통해 필수 의료의 주축인 외상 진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 외상 진료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성경은 작년에 방영된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에서 흥부외과 의사 차은재를 연기해 S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 노건우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방 OST 연간 차트 1위



가수 임영웅의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가 지난해 금영노래방 OST 연간 차트 1위에 올랐다고 금영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가수 이문세가 부른 드라마 ‘욕망의 불꽃’ OST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임영웅 버전 ‘사랑은 늘 도망가’는 드라마 ‘신사와 악가씨’ OST로 쓰였다.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전국 금영노래방

반주기, IPTV, 모바일 앱 ‘가방’을 통해 금영 노래방 차트를 집계한 결과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작년 1~12월 월간 OST 차트 1위를 하며 연간 1위도 차지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임영웅의 리메이크는 임영웅의 내일이 어떤 세대를 불문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임영웅 파워’가 실감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금영노래방 OST 차트에는 이 노래 외에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삼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오정훈 기자

이제훈·구교환 주연 ‘탈주’ 7월 개봉…탈북 군인 추격전

이제훈·구교환 주연의 영화 ‘탈주’가 올여름으로 일찌감치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이종필 감독이 연출한 ‘탈주’가 오는 7월 개봉한다고 10일 밝혔다.

휴전선 넘어 내일이 있는 삶을 꿈꾸는 북한군 병사와 그를 막아야 하는 북한군 장교의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이제훈은 미래가 정해져 있는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는 10년 차 중사 ‘규남’을 연기했다. 구교환은 규남을 잡으려는 보위부 장교 ‘현상’ 역을 맡았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웨이브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2023) 등을 연출한 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 박자수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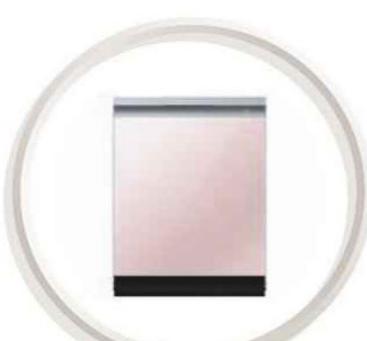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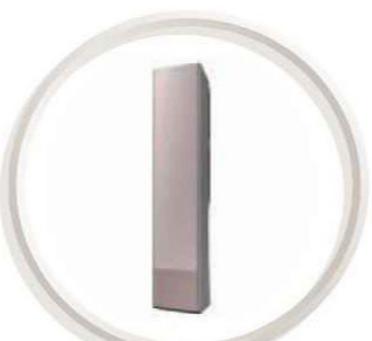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SAMSUNG



2024
삼세페

2024.01.01 - 01.31



혜택1
690

다품목 구매 시 최대 690만

구매 포인트 혜택 제공

(20개 품목 구매 조건, 모델별 최대 혜택 기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본 행사는 특별 퍼카지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합니다. * 본 행사는 예고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행사내용은 행사모델에 한하며 세부 내용은 매장에서 안내드립니다. * 삼성스토어/이마트/홈플러스/전자랜드의 경우, 한 개의 판매전표에 2품목 이상 동시구매하면 행사모델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며 동일 모델 2대 구매는 1대로 간주합니다. * 동일 판매전표 기준이며, 전표 분리시 합산 반영 불가합니다. * 하이마트의 경우, 동일한 구매자가 동일한 행사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구매한 품목/모델을 합산하여 혜택이 지급되며, 동일모델 2대 구매는 1건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스토어/이마트/홈플러스의 경우,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전 가입이 필요합니다. * 구매금액 결제 및 배송일정 D+3일 내 자동적립 되며, 대물 로지텍 배송조건입니다. (핸드캐리/자점 배송지 적립 불가) * 하이마트는 롯데멤버스 L.Point로 지급되며, 롯데멤버스 사전 가입이 필요하며, 구매금액 완불 즉시 자동 적립됩니다. * 멤버십 등급에 의거하는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며, 멤버십 포인트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전자랜드는 혜택은 캐시백으로 지급되며 모델별 혜택과 품목수별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삼성닷컴 바로가기